

완도 금일도 도시재생 추진... 해조류 6차산업 거점으로

금일읍 화목리 일원 15만7000㎡ 2026년까지 175억원 투입 해양관광 연계 상품 개발...해조류 판매 전시장·특화센터 등 조성

완도군이 금일도를 해조류 6차 산업 거점으로 탈바꿈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오는 2026년까지 추진한다.

완도군은 국토교통부 '2022 도시재생 뉴딜사업' (특화재생형) 공모에 선정돼 올해부터 금일읍 화목리 일원 15만7000㎡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앞으로 4년간 국비 105억원, 도비 17억5000만원, 군비 52억5000만원 등 사업비 175억원이 들어간다.

도시재생 사업은 금일읍을 해조류 6차 산업 거점으로 만들고, 해양관광과 연계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완도 금일읍은 전국에서 생산하는 다시마의 70%를 차지하는 주산지이다.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어촌뉴딜 300'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도 연계 사업으로 추진된다.

해조류 6차 산업은 거점 공간인 '해빙센터'를 중심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해조류 비빔류 먹거리'의 줄임말인 해빙센터는 화목리에 연면적 2300㎡ 2층 규모로 지어진다.

이곳에는 해조류 판매 전시장과 해조류 기반 특화센터, 상가 등이 들어선다.

지역 해조류 자산을 연계해 특화 상권을 만들고 해빙 도시브랜드를 만드는 중심지 역할을 한다.

완도군은 주민 설명회를 열어 해빙센터 등 시설 건립·운영 방안을 설명하고, 공공건축 심의를 하고 있다.

또 다른 핵심 사업은 금일읍 특화거리 조성이다. 금일읍 사무소 인근 거점 골목 4곳(5410㎡)의 가로 환경과 경관을 개선할 방침이다.

해빙 비즈니스 지원센터(550㎡)와 임시 판매장(140㎡)을 만들어 '해빙 상권'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완도군은 주민협의체와 현장 실사를 한 뒤 실시계획을 마무리했다. 공사는 오는 10월부터 시작한다.

다음 달부터는 오래된 집 90곳의 외부 경관을 개선하는 등 집수리를 하고, 골목길 포장(2106㎡), 폐쇄회로(CC) TV 설치 등 마을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화목리 해안가에는 저류지를 활용해 3076㎡ 규모 해양 수변공원을 조성한다.

금일읍 사무소 신축에 따라 지상 2층 50면 규모 생활주거장이 건립되면 주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완도군 측은 기대했다.

완도군은 금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청



완도군은 금일읍에서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며 '해빙센터'와 '특화 상권'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일읍 전경. <완도군 제공>

년 인구 200명을 신규 유입하고, 지난해 1510명이었던 하루 평균 유동인구를 오는 2026년까지 3000명으로 늘릴 목표를 세웠다.

관광객은 지난해 연간 23만1000명에서 오는 2026년까지 50만명으로 늘리고, 연도교가 개설된

이후인 2026년 이후부터는 8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완도군 관계자는 "금일읍 화목리 도시재생사업은 지역민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해양바이

오산업과 연계 추진해 완도군이 서남해안권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 소재 공급 기지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암군, 저품질 무화과 사들여 농가 지원

100여t 수매...시장 유통 막아 주산지 명성 유지

영암군이 상품성이 떨어진 무화과 수매에 나섰다.

영암군은 상품성이 떨어지는 저품질 무화과를 오는 18일 삼호읍 대불하수처리장에서 수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매는 저품질 무화과의 시장 유통 근절 등으로 주산지의 명성을 유지하고, 농업인 소득증대를 돕는다는 취지다.

저품질 무화과 수매는 지난 2016년 시작했다.

무화과 수매는 그동안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저품질 무화과의 시장 유입, 수매 시 이물질 혼입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군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 수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수매 지원 단가는 kg당 1500원이고, 총수매량은 100여t이다. 수매한 무화과는 영암군수도사업소 대불하수처리장의 미생물 원료로 재활용된다.

군은 다음 달 농가 수요조사를 거쳐 끝물 무화과를 수매한 후 비누, 마찰제 등 가공품 개발도 이어갈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역 특산품인 무화과의 재배 농가를 지키는 일에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며 "무화과 농가가 저품질 무화과 수매에 적극 참여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이물질 없는 무화과를 출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진도 꽃게·곱창김·흑미 호주 대형마트 입점

군-호주 현지 마이홈푸드 농수산물 100만 달러 수출 협약

진도군이 최근 호주 현지에서 마이홈푸드(대표 리처드 김)와 진도 농수산물 100만 달러 입점판매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진도수협, 서진도농협, 바다물산, 창해수산, 두성재단 등 5개 업체의 잡곡, 진도 꽃게, 곱창김, 울금누룽지, 젓갈, 흑미, 조미김 등이 진도 농수산물이 호주에 첫 수출, 판매된다.

마이홈푸드는 이번 수출 협약에 앞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시드니 소재 프리지엄 마켓과 서울마트에서 진도 꽃게, 곱창김, 진도쌀 등 5t 가량의 진도 농수산물 판촉할인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5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도군은 올해 하반기에는 (주)농심 계열인 미국의 (주)메가마트 애틀랜타점 등에도 진도 쌀과 김 등을 수출·판매할 예정이다.

우흥선 진도군 부군수는 "이번 판촉행사와 협약을 계기로 진도 농수산물의 새로운 시장 개척 가능성이



진도군 관계자들이 호주 시드니 식품 매장에서 진도 농수산물을 홍보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성을 확인했다"며 "우수한 진도 농수산물을 이용해 해외 소비자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판로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

신안 불법개량 안강망 바지선 무기한 단속



신안군 관계자들이 적발된 불법 개량안강망 어구를 절단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이 바지선 불법 개량안강망에 대한 무기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신안군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사전 예고를 거쳐 무기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개량안강망 어업(일명 캔퍼스)은 어획 강도가 높은 불법 조업방식이다.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어업인들을 무시는 마구잡이식 포획으로 어업자원의 남획은 물론 제한 수산물의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으며 항로상 부설된 불법 어구로 선박의 안전 항

행 또한 위협하고 있다.

신안군은 생계를 이유로 행해지는 불법조업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바지선을 이용한 개량안강망 불법조업에 대하여 자진철거를 하도록 유도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구절단 및 압수 등 행정대집행을 강력한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어업인의 건전하고 자율적인 어업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무기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목포 미등록 반려견 9월까지 신고하세요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

목포시는 7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뒤 10월 한 달 동안에는 반려견 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

반려견 등록 때 내장칩 삽입에 한해 등록비용 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목포시는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 소유주가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동물등록제를 홍보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반려견의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려견 소유자는 반드시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영광군 '모바일 헬스케어'로 주민 건강관리

고혈압 등 5개 만성질환...의사·운동처방사 상담도

영광군이 지난달 말부터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인 '모바일 헬스케어'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인 만성질환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기기 앱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게 골자다.

건강검진 결과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등을 측정된 뒤 5개 만성질환 가운데 1개 이상 해당하면 관리 대상이다.

참여자(선착순 100명)에 선정되면 24주 동안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초기·중간·최종 방문 건강검진으로 나눠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의사와 상담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인력이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결과에 따라 활동량계, 혈압계, 혈당계를 측정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받게 된다.

이번 사업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질환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재용 건강' 앱과 호환되는 스마트폰을 사용 중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보건소 건강정책팀(061-350-5812, 517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점기 영광군 보건소장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주민의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 습득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광=김정원 기자 kcw@kwangju.co.kr

해남군 QR상품권 출시 기념 5% 캐시백 이달말까지 연장

해남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QR상품권 출시에 맞춰 2주간 QR결제 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한 데 이어, 8월 한 달 동안 5% 캐시백 이벤트를 연장 추진한다.

이번 이벤트는 8월 한 달 동안 QR상품권 가맹점에서 QR 결제한 고객에게 결제액의 5%를 2만원 한도 내에서 돌려주는 것으로, 5% 할인구매한 상품권을 QR결제 시 총 10% 할인이 적용되는 것이다.

해남군은 해남사랑상품권 결제방식 다양화 및 간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해남사랑 QR상품권을 지난달 15일 출시했다.

현재 QR가맹점은 901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QR가맹점 등록을 원하는 사업주는 해남군청 경제산업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